“中 텃세 걱정없어요 韓 매운 맛 보여줄 것”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4차 대회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박지원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효자종목 쇼트트랙’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 선수단의 메달 경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걸린 9개 금메달 중 6개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대표팀 내부에선 특히 여자 대표팀에 큰 기대를 건다.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가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전 종목 석권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남자 대표팀은 개최국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 대표팀 에이스 출신인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을 비롯해 헝가리 출신 귀화 선수인 사오린 샨도르 류, 사오앙 류 형제를 엔트리에 넣었다.

세 선수는 모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반면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개인 종목 출전 선수 중엔 올림픽, 아시안게임 출전 경험을 가진 이가 없다.

에이스 박지원(서울시청)과 김건우(스포츠토토), 장성우(고려대)는 하얼빈 대회를 통해 아시안게임 데뷔전을 치른다.

종합 국제대회 경험은 적지만, 태극전사들은 모두 자신감에 차 있다.

특히 2022·2023시즌, 2023·2024시즌 종합 세계랭킹 1위를 차지한 박지원은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

박지원은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하얼빈으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몸과 마음이 모두 가볍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다.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중국 선수들과 경쟁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 홈 텃세에 관한 질문에 “모두 내색하지는 않지만 다들 잘 준비하고 있다”며 “첫 메달 종목인 혼성 2000m 계주부터 좋은 결과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박지원 동계 AG 金 출사표

‘효자종목’ 金 6개 이상 목표
男 대표팀, 중국과 경쟁 치열
임효준 등 귀화 선수 넘어야
“2000m 계주부터 승리할 것”

다저스 유니폼 입은 김혜성 “슈퍼스타팀 합류 영광”

“박찬호·류현진 보며 자랐다… 빠른 공 대처 집중 훈련 중”

김혜성(26)이 새로 택한 등번호 6이 박힌 유니폼을 입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팬들에게 첫인사를 했다.

다저스는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타디움에서 2025 팬페스트를 열었다.

김혜성도 오타니 쇼헤이, 블레이크 스넬 등 스타 플레이어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행사 뒤 김혜성은 스포츠넷 LA와 인터뷰에서 “오늘 만난 모든 팬이 ‘웰컴’이라고 말해주셨다. 많은 팬이 응원해 주신다는 걸 느끼게 되니, 기쁘다”고 말했다.

“2023년 토미 에드먼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함께 뛰고, 2024년에는 서울시리즈에서 다저스 선수들과 경기해봤다. 이 팀에 온 기분은 어떤가”라고 묻는 스포츠넷 LA 리포터에게 김혜성은 “다저스는 세계 최고의 팀이다. 내가 원래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다”며 “슈퍼스타들이 많은 팀에 뛰어서 영광이고, 그런 팀원들 사이에서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혜성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는 “나는 다저스 시절 박찬호·류현진 선배의 경기를 보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다저스를 응원했다”며 “MLB 투수들은 KBO리그 투수보다 빠른 공을 던진다. 지금은 빠른 공에 대처하는 법에 집중해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성은 1일에는 다저스 구단이 마련한 자선 행사에 참여했다.

김혜성은 블레이크 스넬, 태너 스콧, 제임스 아우트먼 등과 함께 LA 어르신들을 만나 식사를 함께하고 소방서로 이동해 소방관들과 시간을 보냈다.

김혜성이 LA 시니어 팬, 소방관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이 다저스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현지 매체 KTLA, 다저스네이션 등에 담겼다.

그동안 훈련에 매진하던 김혜성은 1일 행사에서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도 했다.

“내 이름은 김혜성, Hyeseong Kim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혜성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이런 행사에 참여한 것 자체가 영광이다. 최고의 팀에 왔으니,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다. 다저스가 또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혜성이 다저스 구단의 지역 사랑 행사에 참여해 팬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인스타그램 캡처

양민혁, 임대 4일 만에 英 무대 데뷔전

2006년생 공격수 양민혁(사진)이 퀸스 파크 레인저스(QPR) 유니폼을 입고 마침내 잉글랜드 프로축구 데뷔전을 치렀다.

양민혁은 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더 덴에서 열린 밀월과의 2024·2025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31분 일리아스 체어와 교체로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양민혁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경기에 출전한 것은 처음이었다.

양민혁은 K리그1 강원FC에서 활약하던 지난해 7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입단 계약해 주목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중순 토트넘에 합류해 적응 시간을 갖다가 올해 1월 토트넘과 공식적인 계약을 시작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한 차례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고, 결국 경기 출전을 위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QPR로 임대 이적했다. 그러고는 QPR 이적 사흘 만에 바로 데뷔 기회를 잡았다.

교체 선수 명단에 포함돼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양민혁은 QPR이 1-2로 끌려가던 후반 31분 체어가 나오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투입됐다. 비록 공식 출전 시간은 14분으로 길지 않았지만, 양민혁은 그라운드를 밟은 지 1분 만에 오른쪽 측면에서 강력한 슈팅을 날리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날 양민혁은 유효 슈팅 1회, 볼 터치 9회, 패스 성공률 100%(4회 시도해 모두 성공) 등을 기록했다.